

# 참예우, 축산물 브랜드 명품인증 수상

### 전북 한우브랜드... 도축·가공·유통·판매 전 단계 철저한 관리 등의 결실 11년 연속 인증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전북한우광역브랜드인 '참예우'가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19일 대전 선사인호텔에서 열린 2023년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열린 2023년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에서 11년 연속 명품인증 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참예우'는 지난 2010~2012년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에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 연속 '국가명품인증'을 수상했다.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는 우수 축산물브랜드 경영체를 발굴·시상함으로써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개최하고 있다.

권용화 NH참예우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이번 수상은 도내 11개 시·군과 6개 축협 1,100여명의 축산농가와 축협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전



전북농협은 전북한우광역브랜드인 '참예우'가 19일 대전 선사인호텔에서 열린 2023년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에서 11년 연속 명품인증 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북도 및 축산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면서, "모든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철저한 품질관리로 명품 참여우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김창수 의장을 비롯한 지역축협 조합장들은 "참예우가 11년 연속 명품 인증을 수상한 것은 축산물 생산에서부터 도축·가공·유통·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친 철저한 관리와 축산농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든 성과이다. 앞으로도 명품 참예우 브랜드 유지·관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참예우 참여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건협 전북·전주 상수도 본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소재철)는 19일, 전주시 상수도본부와 지역건설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사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협회는 품질·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 기간과 적정공사비 산정을 건의하였고, 철저한 설계검토와 간접비의 적정 반영 지급 등을 요청하였다.

소재철 회장은 "하수관로 같은 공공 시설물은 예산의 절반 못지않게 품질 및 안전의 확보 등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한 고려 요소를 적극 감안해 적정공사비 산출 및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설계기준과 공기산정 기준 정비 등 제도적 보완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빠른 부서 간 협의과정 진행과 적정한 실정보고 처리기한"을 건의하였다.

이에 전주시 상수도본부 김인택 과장은 "허위비용에 처한 지역건설업계의 경영환경에 공감을 표시하며, 적정 공사비 산정 등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전북신용보증재단, 채권소각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

#### 올해 자영업자 986명에 지원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하 전북신보)은 올해 채권 소각을 통해 도내 자영업자 986명에 재기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전북신보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대우변제 후 3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 중 개인회생면책, 파산면책결정, 신용회

복 완제 및 소멸시효완성 등 약 101억원의 채권을 소각했다.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채무가 남아 있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권을 소각함에 따라 채무의 상환 부담을 영구적으로 해소하고, 이로 인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신보 한종관 이사장은 "2018년 채권 소각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도내 자영업자가 재기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향후에도 성실실 패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기 기회 부여를 통해 경제적으로 지탱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포용금융실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 순창성가정식품, 전북도 2023 유망중기 인증

(주)순창성가정식품(대표 김종덕)이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어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수여 받았다.

서류평가, 현장평가, 심층평가를 통해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의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전북도가 선정한 유망중소기업은 지난 14일부터 2028년 12월 23일까지 5년간 인증받게 되며, 도 경영인정자금이 최대 5억원(일반기업 3억원)까지 상향 지원되며, 이차보전도 최대 3%(일반기업2%)까지 지원된다.

또한 보증보험료 할인, 물음·도약기업 선정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점이 부여되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기업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종덕 (주)순창성가정식품 대표이사는 "힘든 시기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임직원들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어 감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순창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순창성가정식품은 IFFE 2023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전북도지사상, 대상 협력사 GWP AWARD 시너지 부분을 수상했다. /순창=이양원 기

### 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 수원인계동에 정육식당 오픈

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테스트 운영 기간을 거쳐 지난달 초 수원시 인계동에 '정육 한우 셀프 정육식당'을 정식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정육 한우 셀프정육센터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마케팅, 외식 전문 전문기업 등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국 브랜드로 확대하기 위한 인계나눔의 기능을 가지고 문을 열었다.

약 270㎡ 규모로 정육점과 식당, 홀과 룸, 별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400여 곳의 농가 조합원이 우수협동조합을 선별, 대물림 사육한 한우를 최적의 숙성을 통해 뛰어난 품질의 한우를 수도권 고객에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제공한다.

/뉴스스



전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전 영역의 발달 지연과 학습 장애를 진료하는 '유아 발달 검사실'을 개소,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 영유아 발달검사실 개소

####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 영역 발달 지연·학습장애 진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소아청소년과에서 전 영역의 발달 지연과 학습 장애를 진료하는 '유아 발달 검사실'을 개소,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영유아 발달 검사실에서는 대근육, 소근육 언어 인지 및 사회성 전 영역의 발달 지연을 진료하고 있으며, 조음장애, 수화장애, 난독증 발달 실어증 등 학습 장애도 함께 진료하고 있다.

소아의 발달 장애는 정신지체, 유전자 이상, 뇌손상, 뇌전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 가능하므로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검사는 만 0세에서 18세까지 소아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의 환자는 모두 가능하다.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두 명의 소아 신경 분과 교수가 진료 중이며, 문진과 신경이학적 검사 및 한국 영유아 선별검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에게 맞는 발달검사를 선별하여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 신경 분과에서는 소아청소년 중증 신경계 질환자들을 위한 진료 지원 시스템인 '누리봄 케어'를 운영, 중증이나 난치성 소아 신경계 질환자들이 응급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핫라인을 통해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과 손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누리봄 케어'는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진료 연계 △각종 거치물 관리를 위한 보호자 교육 및 상담 △환자 상태 전화상담 및 추후 관리 △중증 환자 스케줄 관리 등이 다.

/김욱기 기자

###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선정

#### 전주상의, 시니어 일자리 알선 및 고용시장 안정에 기여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광섭)는 지난 18일, 한국노년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서 '2024년 취업형 사업 수행기관'으로 재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주상의는 지난 2011년부터 14년 연속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1천2백여명의 시니어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의 신규 고용 및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약정급여의 50%를 지원하는 인턴지원금과 인턴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전환 시 3개월 동안 채용지원금을 추가 지급 받게 되어 1인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동일기업에 연속하여 3년이상 장기근속시 1인당 최대 280만원의 장기취업유지형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시니어인턴십은 신규 고용창출 지원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수행기관과 반드시 협약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주상공회의소 일자리지원센터(280-1150)로 연락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욱기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